

공정위, 5대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

- 5대 그룹 계열 80개사의 4조263억 규모의 부당내부거래에 따라 과징금 722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수) 5대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자산·자금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우량한 기업의 재원을 부실 또는 한계기업에 분산·지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력부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개별기업 단위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5대 기업집단 소속의 80개 계열사간에 이루어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1차 내부거래조사는 당초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기업집단 소속의 18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업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지원업체 80개사, 수

혜업체 35개사로서 총 115개사로 확대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내부거래조사 결과 각 그룹의 주력기업인 80개 지원업체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35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부도직전의 기업어음(CP) 고가매입,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CP 고가매입,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증권예탁금 명목의 저리대여, 부동산 매각대금 지연회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4조263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그룹이 35개사 226억원으로 가장 많고, SK, 삼성, LG, 대우 순으로 부과되었다.

◆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 및 과징금 규모 ◆

(단위:억원)

기업집단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지원성거래규모 ^(*)	과징금규모
현 대	35	11	7,706	226
삼 성	7	9	7,200	114
대 우	6	7	4,229	89
L G	20	6	10,573	102
S K	12	2	10,555	191
합 계	80	35	20,263	722

주 1) 예탁금, 대여금, 선금금, 기업어음 등 자금거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합계임

2) 부동산임대료는 월임차료를 년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임차보증금과 합산한 것임

이번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조사 결과 총 35개 수혜회사의 71.4%에 달하는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며, 이중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이 9개사에 달해 기업집단의 주력기

업이 재무구조가 빈약한 계열사를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알루미늄, 현대리바트,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등과 같은 적자 기업이 계열사 지원에 동원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 5대그룹 수혜업체별 재무상태 ◆

적자회사(25개사)			자본잠식회사	흑자회사
1년 적자	2년 적자	3년 적자		
현대전자산업, 만도기계, 한라건설, 현대중합금속, 현대방송, 스피디코리아, 대우자판, 회성금속, LG종금, LG파이낸스, 흥콩	한라시멘트, 한라해운, 삼성중공업, 삼성자동차, 대우증권, 중원	대한알루미늄, 현대리바트, 한라자원, 삼성에버랜드, 무진개발, 연포레저개발, 원전에너지, LG증권, SK증권	대한알루미늄, 현대리바트, 현대방송, 한라자원, 한라해운, 무진개발, 스피디코리아, 원전에너지, 중원	현대중공업, (주)보광, 삼성물산, 삼성전자, 한솔제지, (주)대우, 대우개발, 대우레저, 대우중공업, 회성전선
10개사	6개사	9개사	9개사	10개사

또한 지난 '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된 계열지원회사의 『재무건전성기준』의 충족을 위해 계열회사들이 후순위사채를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주식예탁금을 저리로 예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혜회사를 지원하였다. 특히 현대중합금융, 삼성생명, LG종금 등과 같은 계열금융사는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자금매개 창구로 이용되었으며, 한라소속의 5개사나 한솔제지 등과 같이 계열사에서 분리된 동일인의 친인척회사에 대해서도 다수의 계열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자금·자산 등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경쟁력이 약하거나 부실한 계열기업이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자력으로 경쟁하는 비계열 독립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지원주체인 우량기업의 경영에너지를 소진하여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약화시키고, 지원을 받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개별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 위반업체에 대해 당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사대금이나 외상매출금, 영업양도대금 및 부지매각대금의 미회수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또한 동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각 기업 매출액의 2%를 최고한도로 하여 지원금액(정상가격과의 차액×지원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및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을 근거로 각 부당내부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차등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5대 그룹 40개 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마무리해 8월중 전체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9월중에는 6대부터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있다.

각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대그룹

현대자동차(주) 등 현대그룹 소속 계열 19개사는

지난 '97년 11월 19일부터 '98년 3월 12일의 기간중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공업(주)와 현대리바트(주)가 발행한 무보증 사채전환사채 2,100억원과 500억원을 11~18%의 이자율로 각각 인수하였으며, 또한 현대자동차(주) 등 5개사는 부도에 직면한 회사의 기업어음은 시중금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리로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금리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은행평균 당좌대출금리인 37.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12~23%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여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라건설(주), 만도기계(주) 등 5개사가 지난 '97년 12월 부도직전에 발행한 CP를 인수하기 위하여 4,323억원을 지원하였다.

현대중공업(주) 등 32개사는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주)가 신축중인 연구소 건축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7년 5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 중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중공업(주)와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현대종합금속에 선금금 명목으로 35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였다.

삼성그룹

삼성생명보험(주)는 특정금리신탁제도를 이용하여 '97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조흥은행 등 8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에 2,335억원을 예치하고 조흥은행 등은 대한종금 등 8개 종금사로부터 삼성자동차(주), 삼성에버랜드(주), 한솔제지(주)가 발행한 CP를 동일 신용등급 CP의 할인율보다 낮은 11.63~14.7%포인트로 계속하여 할인·매입토록 함으로써 관련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으며, 삼성전관(주) 등 5개사는 삼성물산(주)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국제경제연수원과 삼성중공업(주)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소재의 연수원을 임차해주면서 고가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334억원 및 438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주)는 무진개발(주) 및 (주)보광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경과된 골프장 시설공사대금과 대여금 313억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삼성전관(주)는 천안 컴퓨터모니터 액정화면 생산공장을 삼성전자(주)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171억원을 3개월 지연회수하였다.

대우그룹

대우증권(주)가 국내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97년도에 37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자신의 영업용순자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자,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한 후이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원금상환의 불확실성, 무담보, 무보증으로 인수자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대우 등 4개사는 '98년 1월 23일부터 '98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4회에 걸쳐 대우증권(주)가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사채 2,000억원을 CD 수익율보다 1%포인트 낮은 이율로 전액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우증권(주)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우중공업(주)는 '94년 9월 2,700억원 상당의 부산 수영만매립지 약 4만3천평을 (주)대우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362억원과 지연이자 235억원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았으며, (주)대우는 (주)대우레저가 '94년 7월에 발주한 포천골프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4월부터 '98년 1월중에 발생한 공사기성금 550억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혜업체를 지원하였다.

LG그룹

LG반도체(주) 등 14개사는 지난 '97년 12월 중 3회에 걸쳐 계열사인 LG증권(주)가 3년만기 이자율 9.94~11%로 발행한 2,000억원의 후순위증권을 인수하였으며, (주)LG화학 등 9개사는 '97년 11월 계열사인 LG증권(주)가 5년 6개월 만기이자율 13%로 발행한 896억원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수혜업체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LG반도체(주)는 외환위기에 따른 종금사들의 자금경색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특히 LG증권(주)가 지난 '98년 3월 결산시 2,672억원의 적자를 실현하는 등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LG증권(주)의 기준수신금리보다 2~22%포인트 낮은 저리로 총 55회에 걸쳐 4,642억원을 예치했다.

SK그룹

SK상사(주) 등 6개사는 SK증권(주)가 '95년부터

3년연속 적자('97사업연도 : 3,422억원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98년 2월말 경영용순자본비율이 $\Delta 268.4\%$ 로서 이미 폐쇄된 동서증권(주)나 고려증권(주)보다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증권(주)가 '98년 2월과 3월에 발행한 3,5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그 당시 3년 만기 은행보증회사채의 유통수익을 205%와 185%보다도 현저히 낮은 12.57%와 14.66%의 수익율로 인수하였으며 SK(주) 등 8개사는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사인 SK증권(주)에 개설한 자사의 거래구좌에 주식투자를 고객예탁금 명목으로 3,875억원을 예치만 하고 주식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SK건설(주) 등 6개사는 SK증권(주)에 대한 지분이 없고 특별한 투자유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3월 SK증권(주)의 유상증자시 9,400만주를 주당 3,200원(액면가 5,000원)에 매입하고 총 2,996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주)를 지원하였다.

◆ 기업집단별 · 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

(단위:억원)

집단명	회사별 과징금	계
현 대	현대중공업(7,879), 현대자동차(6,798), 현대전자(3,380), 현대산업개발(1,849), 현대증권(644), 현대정유(337), 현대차서비스(189), 현대할부금융(179), 현대정공(169), 고려산업개발(143), 인천제철(139), 현대엘리베이터(138), 현대상선(129), 미포조선(113), 현대건설(106), 현대화재(96), 현대증권(69), 현대종합상사(47), 현대정보기술(46), 현대엔지니어링(45), 국민투자(49), 현대석유화학(28), 금강개발(25), 금강기획(10), 현대강관(8), 현대우주항공(8), 현대리마트(6), 케피코(4), 현대방송(4), 현대정유판매(3), 현대물류(3), 현대알루미늄(3), 대한알루미늄(2), 현대경제연구원(2), 현대중기산업(1)	22,651
삼 성	삼성생명보험(7,087), 삼성전자(1,383), 삼성전관(1,354), 삼성에버랜드(905), 삼성화재(368), 삼성항공(236), 삼성중공업(86)	11,419
대 우	대우(5,110), 대우중공업(2,314), 대우자동차(800), 대우전자(600), 경남금속(30), 대우할부금융(19)	8,873
L G	LG반도체(2,585), LG칼텍스가스(2,086), LG산전(600), LG석유화학(600), LG텔레콤(400), LG백화점(400), LG정밀(400), LG건설(392), LG마이크론(360), LG유통(300), LG소프트(240), LG증권(231), LG화학(200), LG정보통신(200), LG상사(200), LG신용카드(200), LG실트론(200), LG에드(200), LG오웬스코닝(200), LGMMA(200)	10,194
S K	SK(4,113), SK건설(2,569), SK에너지판매(2,200), SK상사(2,200), SK가스(2,011), SK옥시케미컬(2,000), SK유통(1,611), SKC(1,206), SK케미컬(1,000), SK텔레콤(96), SK투자신탁운용(31), SK캐피탈(14)	19,051